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Issues in Development

개발과 이슈

제83호 | 2025. 6월

제4차 개발재원총회 내용 전망과 함의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WORLD FRIENDS KOREA

한국국제협력단은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대한민국의 개발협력 대표기관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의 인권 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 및 우호협력 관계 증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이슈』는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과 최근 연구 및 정책을 소개하여 국내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되는 비정기간행물입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 자료는 KOICA ODA 전자도서관(lib.koica.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에는 제3자에게 권리(저작권)가 있는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 이용 허락은 사용자가 권리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해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출처와 집필자 명시하에 인용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표기 바랍니다.
고요한. 2025. “제4차 개발재원총회 내용 전망과 함의.” **개발과 이슈**, no. 83.

※ 본 자료는 KOICA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koica.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저자

고요한 _ 한국국제협력단 ODA연구교육원 과장 / yohanko@koica.go.kr

제4차 개발재원총회 내용 전망과 함의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개발재원총회의 역사

Ⅲ.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별 현황

Ⅳ. 이슈별 주요 쟁점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요약

2015년 이후 SDGs 달성에 필요한 연간 재원은 36% 증가하여 9조 2,400억 달러에 달하며, 부채 부실 위험 국가 수도 크게 늘어 추가 재원 동원 없이는 SDGs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6월 말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리는 제4차 개발재원총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부족과 심화되는 개발도상국의 부채 위기 해결책을 찾는 중요한 회의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총회 결과문서에는 '개발효과성'이 국제개발협력 의제에 추가되고, '시스템 문제 해결'이 '국제금융구조 및 시스템 문제'로 명확화되는 등, 재원 부족 시대에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제 금융 시스템 개혁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 7개 활동 영역별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 상황이다. 국내외 재원 동원 의제 중 조세 협력 강화에서 선진국은 OECD 중심의 '두 기둥 해법'을 지지하는 반면, G77과 중국은 유엔 차원의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국내 및 해외 민간재원에서는 신용평가 방법론 개정과 송금 비용 인하가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의제에서는 개발도상국은 ODA의 지속적 확대를 요구하며 ODA/GNI 0.7% 목표 달성 시한을 지정하길 원하나,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국내재원 동원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개발동력으로서의 국제무역 의제에서는 농업 보조금 철폐,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한 일방적 무역 조치(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등이 쟁점이다. 부채 및 부채지속가능성 의제에서는 개발도상국은 유엔을 통한 부채 협의체 마련을 주장하는 반면, 선진국은 기존 메커니즘인 G20 공동 프레임워크의 실효성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금융구조 및 시스템 문제 의제에서는 G77과 중국은 IMF 투표권 및 세계은행 지분 구조 개혁, SDR 추가 발행 및 재투자를 요구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은 해당 기관의 자율성과 다른 기구의 독립성 존중을 강조하며 유엔의 관여에 반대하고 있다. 과학, 기술, 혁신 의제에서는 기술 발전의 혜택 또한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있어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인프라 투자와 기술 이전 촉진이 중요하게 논의되나, 선진국은 기술 이전의 자발성과 상호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원총회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는 않지만, 개발 측면에서 각 국가에 우선순위를 제시하며 국제 정치 의제에 영향을 미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재원 조달이 공동의 책임이라는 글로벌 담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개발효과성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와 개발효과성 제고 노력, 민간 재원 동원 노력 구체화, 유엔의 개발재원포럼 참여, 범정부 차원의 개발 정책 일관성 개선, 유엔 중심의 조세 및 부채 논의 체계 구축 등과 같은 새로운 국제 거버넌스 흐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FFD4의 핵심 주제는 세계 경제 거버넌스의 민주화라고 할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현상 속에서 한국은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Ⅰ. 서론

기후문제, 코로나 19 팬데믹, 공급망 붕괴,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상승, 지정학적 위기 등 지난 몇 년간의 글로벌 혼란으로 인해 2030년까지 SDGs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연간 자금이 2015년 6조 8,100억 달러에서 2022년 9조 2,400억 달러로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채 부실 위험이 높은 국가 숫자는 2015년 16개국에서 2024년 24개국으로 늘어나 추가 재원 동원 없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기아과 빈곤은 진전이 정체되거나 상황이 퇴보하기도 하였다(OECD 2025).

한편, 올해 6월 30일부터 4일간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리는 제4차 개발재원총회(Four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FFD4)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제3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10년 만에 열리는 재원 회의로 이렇게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동원할지 논의하는데 가장 유효하고 큰 회의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유엔은 회원국들과 함께 작년부터 준비 회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총 네 번의 준비 회의가 열렸으며, 제4차 회의 결과문서 초안이 1월, 수정안이 3월 그리고 마지막안이 6월에 공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사회가 SDGs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제3차 회의 이후 10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 남은 6년간 △국내재원동원, △국내 및 해외 민간재원, △국제개발협력, △개발동력으로서의 국제무역, △부채 및 부채지속가능성, △시스템 문제 해결, △과학·기술·혁신 및 역량강화 라는 7개의 활동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고, 국가별로 무엇을 공약할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속가능개발 위기의 핵심은 자금조달 문제이며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 7개 모두 그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국내재원동원은 세수확대가 정체되어 있으며, 국제개발협력은 ODA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증가하는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2000년대 감소세를 보였던 부채수준은 인프라 추진의 결과로 지난 10년간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8년 세계금융 및 경제 위기 이후 민간 부문의 역동성은 주춤한 추세이며, 무역과 투자 확대는 개발도상국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최빈국은 포함되지 않았고, 기술의 복잡성 증가와 주요 행위자들의 시장 지배력으로 인해 기술확산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United Nations, 2024a).

올해 초, 미국은 행정명령을 발표하여 미국 국제개발처(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외국 지원 프로그램을 90일간 중단하고 재평가하도록 했고,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와 파리 협정에서 탈퇴를 재확인했다. 이러한 조치는 개발도상국의 인도주의, 보건, 기후 이니셔티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부 EU 국가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개발협력 예산을 삭감하여 국제 개발 및 인도주의 분야에 큰 압박이 가

해지고 있다. 아울러 개발 지원이 점점 더 군사화되고 있으며, 원래 빈곤 퇴치와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 마련된 자금이 이주 통제, 안보 협력, 지정학적 경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일부 개발협력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글로벌 원조산업 붕괴의 시작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Usman 2025). 그러나 금융 격차 확대, 부채 압박, 기후 및 지정학적 위기 심화 등 SDGs 달성이 어려운 환경에서 열리는 이번 재원총회는 원조 패러다임의 종식이 아닌 원조의 근본적인 토대를 더욱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고도 볼 수 있다. 유엔의 특성상 이번 총회의 결과가 강제력이 약하고, 구체적인 정책 조치에 대한 결정이 드물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국제 정치 의제에 영향을 미치고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활동을 상위에서 아우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재원조달이 공동의 책임이라는 글로벌 담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본 고는 지금까지의 개발재원총회의 배경과 역사를 살펴보며 국제사회 이 총회를 통해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 확인하고, 10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4차 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와 쟁점들을 미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회의 잠정 결과가 한국의 개발협력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지, 이를 바탕으로 한국 또는 KOICA의 개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개발재원총회의 역사

2002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린 제1차 개발재원총회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채택이후 목표달성을 위한 재원마련 방법을 논의하고자 개최되었다. 처음으로 정부, 국제기구, 국제금융기구, NGO, 민간부문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모든 형태의 개발재원로의 접근을 고민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회의 결과문서인 몬테레이 컨센서스에는 개발재원으로써 개발도상국 내 재원 동원, 국제민간재원 동원, 개발을 위한 무역의 중요성, 개발을 위한 국제재정 및 기술협력증대, 채무 탕감 및 채무 재조정 노력, 개발도상국의 무역 참여율 확대 및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한 국제제도 개혁 필요성이 담겨 있는데, 개발재원 조달의 이 6가지 영역은 이후 모든 재원 논의에서 기준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권고와 제안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부재하여 결과문서에 구체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이 존재하기도 한다(정지원, 정지선 2011).

2008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2차 총회는 MDGs 달성 기한이 절반 정도 남은 시점에서 목표 달성 중간 점검 및 동력 부여 차원으로 개최되었다. 몬테레이 컨센서스의 6개 분야 결의 사항을 재확인하고 식량 위기 및 기후 변화라는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국제경제가 침제된 상황에서 개최되어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동 총회를 통해 선진국들의 원조 감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기존에 설정한 원조 확대 목표를 2015년까지 달성할 것임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개발도상국이 개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성이 있음을 강조하며, 효과적인 재원 동원을 위해 개발도상국 조세제도 개혁과 불법자금흐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기하였다(정지원, 정지선 2008). 또한 몬테레이 회의 이후 최빈국의 부채 탕감에 있어서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당시 금융위기로 인하여 새로운 금융규제와 관리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개혁의 필요성과 맥을 같이 하여, 국제적 부채 경감 메커니즘과 부채 모니터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2015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제3차 총회는 새로운 개발목표인 SDGs 이행에 필요한 개발재원 조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회의 결과문서로는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Addis Ababa Action Agenda, AAAA)가 채택되었다. AAAA내 주요 성과물로는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기술촉진메커니즘 구축, 민간재원동원 강조, 개발정책정합성 제고 방안의 중요성 대두, 통계 및 데이터 투명성에 대한 고려를 들 수 있다(박수영, 오수현 2015). 한편, MDGs를 거쳐 SDGs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가 합의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의 규모, 종류, 방법 등을 정부,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함으로써 재원이 개발협력에 있

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관심을 잃지 않게 하고 있다는데 총회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회의를 거듭하면서 개발재원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고 총회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추후 각 국가의 개발전략에 반영되기도 하며 개발협력 지형 변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표 1은 지금까지 총회 결과문서와 이번 총회 결과문서안을 비교한 표이다. 1차와 2차 총회 결과문서 구성은 마지막에 추가된 Other new challenges and emerging issues를 제외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3차 총회 결과문서는 길이와 구성에서 기존 문서와 큰 차이를 보인다. 수원국의 국내 재원을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따로 분리하였고, 분리된 민간재원을 국제민간재원과 같이 묶어 정리하였다. 부채지속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부채 문제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고려하기 시작하였고, 과학기술혁신과 역량강화라는 새로운 개발재원의제가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와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번 4차 총회의 결과문서 마지막 버전이 공개되었는데, 초안과 수정안을 함께 비교하였을 때 가장 크게 변경된 점은 국제개발협력 의제에 개발효과성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재원 부족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쓸 것 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게 된 것이다. 또한 국제금융체계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강조하고자 6번째 의제가 시스템 문제라는 단순한 표현이 아닌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and Systemic Issues라는 문구로 대체되었다. 그만큼 국제금융체계가 국제협력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 4차 총회 문서 길이는 처음 초안이 나왔을 때보다는 길어졌지만 3차 총회 문서와 비교했을 때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SDGs 채택이라는 동력을 얻어 야심찬 계획을 세웠던 3차 총회의 결과물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재편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표 1〉 개발재원총회 결과문서비교

	Monterrey Consensus	Doha Declaration	Addis Ababa Action Agenda	Sevilla Platform for Action (결과문서안)
총장	I. Confronting the Challenges of financing for development : a global response (1~9)	Introduction: Reaffirming the goals and commitments of the Monterrey Consensus (1~7)	I. Global framework for financing development post-2015 (1~19)	I. A renewed global financing for development framework (1~25)

	Monterrey Consensus	Doha Declaration	Addis Ababa Action Agenda	Sevilla Platform for Action (결과문서안)
본문	II. Leading actions A. Mobilizing domestic financial resources for development (10~19) B. Mobilizing international resources for developm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other private flows (20~25) C. International trade as an engine for development (26~38) D. Increasing international financial and technic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39~46) E. External Debt (47~51) F. Addressing systemic issues: enhancing the coherence and consistency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inancial and trading systems in support of development (52~67)	• Mobilizing domestic financial resources for development (8~22) • Mobilizing international resources for developm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other private flows (23~29) • International trade as an engine for development (30~39) • Increasing international financial and technic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40~55) • External Debt (56~67) • Addressing systemic issues: enhancing the coherence and consistency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inancial and trading systems in support of development (68~79) • Other new challenges and emerging issues (80~86)	II. Action Areas A. Domestic public resources (20~34) B.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ivate business and finance (35~49) C.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50~78) D. International trade as an engine for development (79~92) E. Debt and debt sustainability (93~102) F. Addressing systemic issues (103~113) G.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and capacity-building (114~124)	II. Action Areas A. Domestic public resources (26~30) B.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ivate business and finance (31~34) C.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development effectiveness (35~41) D. International trade as an engine for development (42~46) E. Debt and debt sustainability (47~51) F.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and systemic issues (52~57) G.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and capacity-building (58~61)
종장	III. Staying engaged (68~73)	Staying engaged (87~90)	III. Data, monitoring and follow-up (125~134)	III. Data, monitoring and follow-up (62~66)

자료 : 박수영, 오수현. 2015; United Nations 2025.

Ⅲ.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별 현황

이번 총회에서는 2015년 회의 이후 결과문서의 각 행동의제별 진척사항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AAAA의 각 영역별로 지금까지 개선된 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SDG 17번의 세부목표를 AAAA 각 영역과 맵핑해 보았다. SDG 17의 총 19개 세부목표 중 모니터링과 관계된 마지막 2개 목표를 제외하고 모든 세부목표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AA와 맵핑이 된다. 이에 따르면 국내재원동원과 국제무역에서 개발도상국의 수출이 정체되어 있고, 부채와 부채지속가능성과 시스템 이슈 중 일부가 후퇴한 상황이다. 나머지 영역은 진행상황이 양호하거나 진척속도를 조금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진척 및 문제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 2〉 AAAA와 SDG 17 맵핑 및 진척현황

AAAA	SDG 17	진척현황
국내재원동원	17.1 Tax & other revenue collection	Stagnation
국내외 민간재원	17.3 Additional financial resources for development	Moderate progress, but acceleration needed
	17.5 Investment promotion for LDCs	On track or target met
국제개발협력	17.2 ODA commitment by development countries	Marginal progress, and significant acceleration needed
	17.9 Capacity building for SDGs	On track or target met
	17.16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sufficient data
	17.17 Partnerships(public, private, cso)	Insufficient data
국제무역	17.10 Multilateral trading system(WTO)	On track or target met
	17.11 Exports of developing countries	Stagnation
	17.12 Duty-free market access for LDCs	Marginal progress, and significant acceleration needed
부채와 부채 지속가능성	17.4 Debt sustainability	Regression
시스템이슈	17.13 Global macroeconomic stability	Moderate progress, but acceleration needed
	17.14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sufficient data
	17.15 Respect country's policy space	Regression

AAAA	SDG 17	진척현황
STI	17.6 Access to technology	On track or target met
	17.7 Transfer of technologies	Marginal progress, and significant acceleration needed
	17.8 Use of the Internet	On track or target met

자료 : United Nations 2024b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가. 국내재원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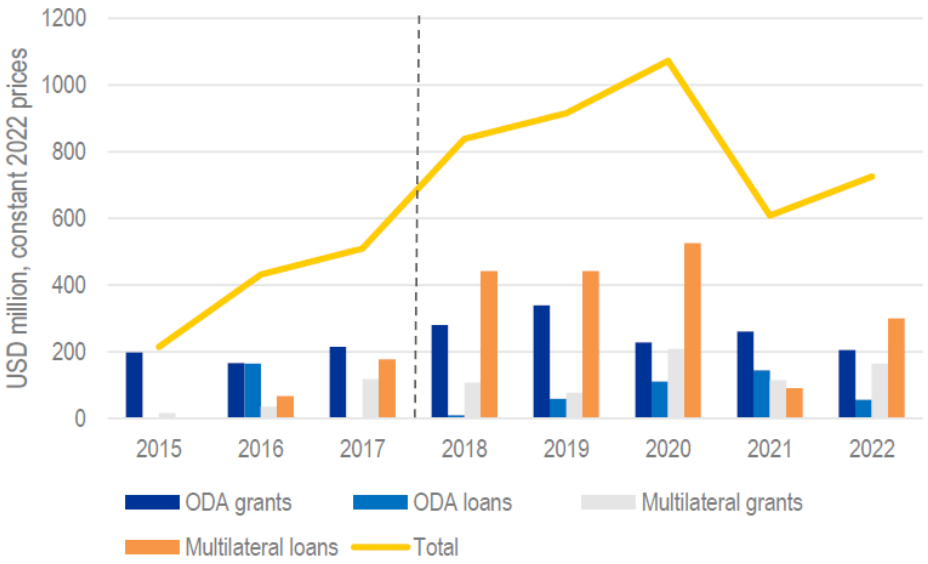
개발도상국 각자가 빈곤퇴치와 경제개발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국내 재원의 동원과 효과적인 사용은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재원 조달의 핵심이다.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개발도상국의 세수가 증가하였으나 2008년 글로벌 경제 및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그 증가세가 정체 또는 후퇴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조세 집행을 위한 정보에 대한 접근과 활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동시에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불법 금융 흐름 예방과 퇴치, 불법 활동에서 파생된 자산을 회수해야 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 국내재원동원을 위해서 세금시스템과 공공재정 관리시스템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조세 행정 개선을 위한 역량 강화와 정책 지원, 국가개발은행 잠재력 활용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국내적 노력은 국제조세협력강화, 불법 금융 흐름과 부패를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조치 등 국제협력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3차 회의 이후 아디스 세금 이니셔티브(Addis Tax Initiative)라는 파트너십과 지식 구축을 통해 공정하고 효과 만들어졌으며, 회원간 협력, 동료학습, 경험과 사례 공유 추진, 회원간 조정 역할을 바탕으로 파트너 국가에게 양질의 기술과 역량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국내 공공 재원 동원에는 여러 진전 사항이 있었다. OECD(2025)을 바탕으로 보면 첫째, 개발도상국 정부의 부채 상환 후 가용 수입의 규모가 증가하여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015년 가용 수입이 3조 1,500억 달러이었던 것이 20% 증가하여 2022년에는 3조 7,900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이러한 증가는 모든 소득 그룹에서 나타났다.[1] 둘째, 다국적 기업에 효과적으로 과세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도 확대되었다. 102개 관할권에서 세무 당국이 주요 국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2024년 11월 기준 104개 관할권에서 양자 간 조세조약을 수정하고 OECD의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을 방지하기 위한 조세조약 관련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다자간 협약에 서명하였다(OECD 2025b). 셋째, 부패 방지 노력 및 공공 재정 관리 개선 시도가 있었다. OECD 뇌물방지 협약

1)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및 기타 저소득국(Low Income Countries, LICs)에서 21%, 하위 중소득국(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LMICs)에서 30%, 상위 중소득국(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UMICs)에서 15% 증가하였다(OECD 2025c).

에는 현재 46개국이 참여하여 국제 비즈니스 거래에서의 뇌물 방지에 전념하고 있다(OECD 2025a). 마지막으로, 국내재원동원을 지원하기 위한 ODA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 2억 1,970억 달러에서 2022년 7억 4,87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2020년 11억 달러를 정점으로 감소한 수치이긴 하지만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은 아디스아바바 회의 이후 공여국들이 개발도상국 국내 공공 재원 동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 국내재원동원 지원 ODA (2015-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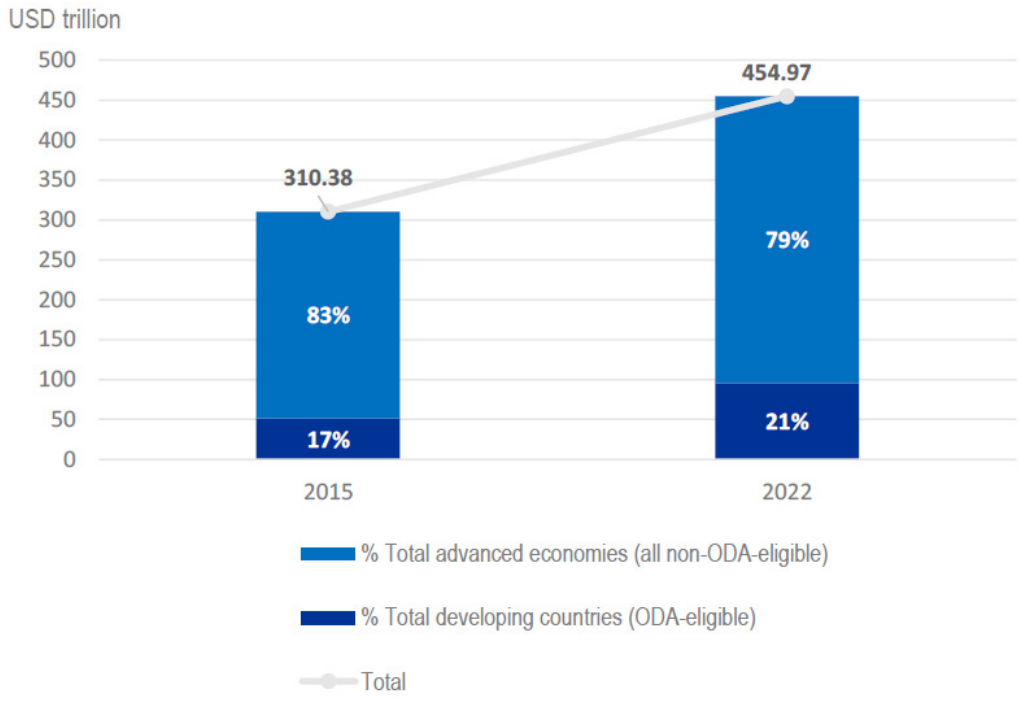
자료 : OECD 2025c, 62

그러나 아직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우선, 개발도상국의 GDP 대비 정부 수입 비율은 정체되어 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GDP 대비 개발도상국의 총 정부 수입(세수 및 비세수 포함)의 비율은 28.2%에서 28.3%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OECD 2025c). 또한, 국내 세금으로 충당되는 국내 예산의 비율은 2000년 63.5%에서 2022년 59.0%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또한, 비효율적인 화석 연료 보조금이 지속되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공공 재원 고갈과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 노력 저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마지막으로 2024년 기준 상당수의 LICs가 높은 부채지속가능성 위험 또는 부채 위기에 처해 있어 지속가능개발 신규 투자에 있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OECD 2025c).

나. 국내 및 해외 민간재원

많은 개발도상국과 기업은 여전히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장기재원을 동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민간 투자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민간 금융을 동원하려는 공공 부문의 노력은 SDGs에 충분히 초점을 맞추지 못하거나 민간 자본을 대규모로 촉진하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국내 저축 기반 구축 및 역량 개발, 개발지향적 벤처 캐피탈 펀드와 같은 국내 투자 수단 창출 촉진, 금융시스템 인프라 개발 및 디지털화에 대한 투자 지원 등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 보호, 금융 이해력, 규제를 통한 금융 건전성 강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포용성 강화, 기업가정신 역량강화, 중소기업의 저리신용대출 장려, 송금 서비스 비용 인하(송금액의 3% 미만), 혁신재원 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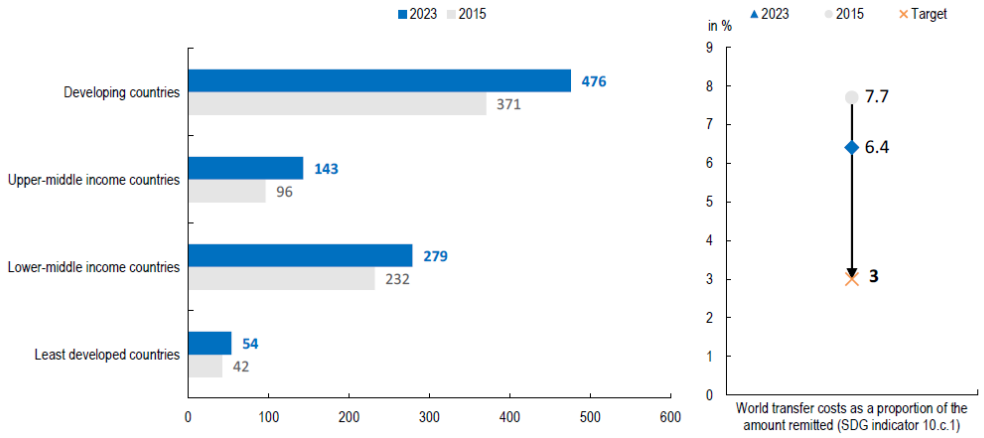
〈그림 2〉 글로벌 금융자산 변화



자료 : OECD 2025c, 95

국내외 민간재원 및 금융에 있어서 지금까지 진전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2015년과 2023년 사이에 전 세계 금융 자산은 47% 증가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개발도상국의 금융 자산 보유 비중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7%에서 21%로 증가하였다. 또한 개발도상국으로의 송금 규모가 2015년 3,710억 달러에서 2023년 4,760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송금 수수료 비율은 2015년 7.7%에서 2023년 6.4%로 줄어들었다(그림 3 참고). 아울러 국제사회가 공여국이 투자위험부담을 안고 개발도상국의 민간 부문에 지원하는 금액을 ODA로 인정함으로써 타 민간재원의 투자를 유인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금융 포용성도 개선되어 개발도상국 성인의 금융 계좌 보유율은 2011년 41%에서 2021년 71%로 증가했다(OECD 2025c).

〈그림 3〉 송금액과 송금수수료 변화



자료 : OECD 2025c,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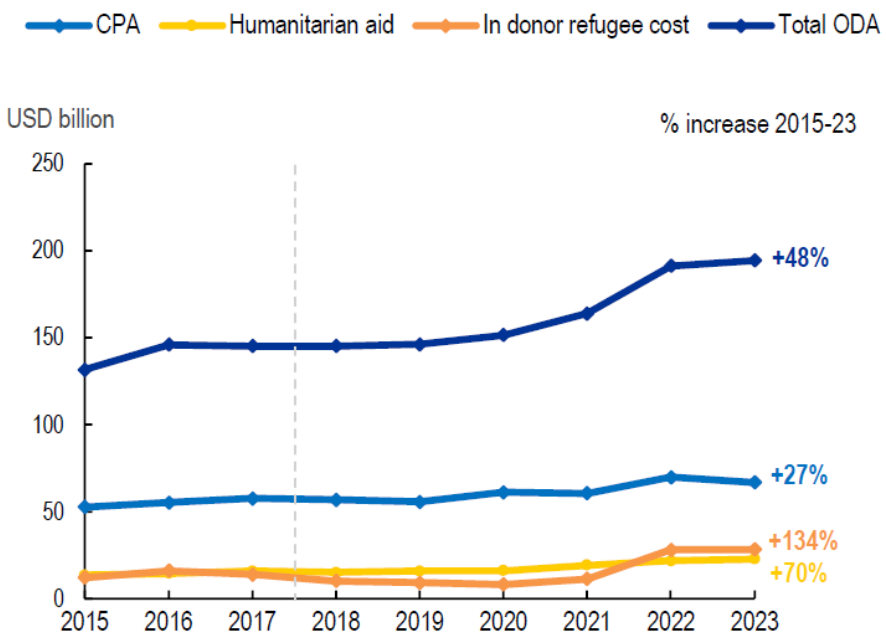
그러나 LDCs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은 2023년 313억 달러로 2015년 376억 달러보다 줄어든 수치이다(OECD 2025c). 송금수수료도 낮아지긴 했으나 SDGs 목표치인 3%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 ODA로 인해 동원된 민간재원은 증가하긴 했으나 2022년 기준, 대부분의 민간 재원이 MICs로 흘러갔으며, LDCs로 지원된 것은 12%에 불과하였다(OECD 2025c).

다.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은 지속가능개발을 실현하고 2030 의제를 이행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재원이다. LDCs와 취약국에서의 개발 노력을 지원하는데 있어 ODA의 역할은 특히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최근 정치적 우선순위의 변화로 인해 ODA에 대한 각 공여국의 입장이 달라지면서 지속적인 빈곤과 불평등, 기후 위기로 인해 한정된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한 상황에 직면한 국가의 개발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번 제4차 총회에서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지속적인 ODA의 확대, 남남 및 삼각협력 활용, 기후,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를 위한 자금 조달, 다자개발은행과 공적개발은행 시스템 개선, 국제개발협력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DAC공여국의 ODA 변화



자료 : OECD 2025c, 123

국제개발협력에서 주요 진전 사항을 살펴보면 2015년 이후 DAC 회원국이 제공한 총 ODA는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310억 달러였던 ODA가 2015년 불변가격 기준, 2023년도에는 1,940억 달러를 기록하여 48% 증가하였다(그림 4 참조). SDGs 달성에 투입되는 재원을 측정하고자 개발한 새로운 통계척도인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SSD)이 유엔 통계위원회에 의해 SDG 세부목표 17.3.1의 지표로 확정되었다. TOSSD 데이터는

2019년부터 수집되고 있으며, 데이터를 보고하는 주체와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민간재원동원 금액 또한 2015년 277억 달러에서 2022년 626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OECD 2023). 반면 더욱 노력해야 하는 점들도 존재한다. ODA/GNI 0.7% 달성 공약은 여전히 충족되지 못한 상태이고 LDCs를 대상으로 한 0.15~0.2% 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ODA 금액이 늘어남과 동시에 프로젝트 규모가 축소되고, 지원이 분산되며 원조 파편화가 확대되어 개발 협력의 효과성 및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간재원동원 금액 증가는 환영할 일이지만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수조 달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원의 대부분이 MICs에서 동원되어 가장 도움이 필요한 국가를 우회하고 있는 문제도 있다. 또한 늘어난 ODA의 집행분야가 기후 문제, 공여국내 난민 지원, 전염병 관련으로 개발도상국의 장기적인 개발과 빈곤 감소 목표에 지원하는 것이 아닌 단기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ODA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마지막으로 인당 GNI는 한 국가의 ODA 수혜 자격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이지만 이 지표가 개발재원을 배분하는 유일한 척도가 아니며, 세계 빈곤과 불평등이 변화하고 기후변화와 부채로 인해 위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취약성에 대한 다른 측정과 지표를 개발하여 인당 GNI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라. 개발동력으로서의 국제무역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서 국제무역은 지정학적 긴장 고조, 공급망 붕괴, 관세 및 무역 제한의 확대, 디지털화,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무역에서 LDCs의 수출 비중을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가 있으나, 이들 국가들은 여전히 세계 무역의 변방에 머물러 있으며 많은 LDCs가 가격 변동성이 큰 천연자원과 주요 원자재 수출에만 의존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디지털 전환 등에 필요한 주요한 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매장량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은 광물의 추출, 가공 및 부가가치 활동에 투자할 재정적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한 다자간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개발재원 확보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국제무역에서의 주요 진전 사항을 살펴보면 개발도상국에 지원한 무역을 위한 원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율은 2015년 44.6%에서 2022년 48.7%로 소폭 증가하며 세계 경제에 점점 더 통합되고 있다(OECD 2025c). 무역원활화 개선이 힘입어 관세와 무역비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2년 LDCs는 관세품목의 62.9%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받았으며, 이 비율은 2015년 이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같은 해 군소도서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은 제품의 74.3%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받았으며, 이는 2015년 대비 12% 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UNCTAD 2024b). 그러나 특정 그룹은 국제무역에서 여전히 소외되어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수출은 여전히 다각화가 미흡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상황이다. 2021년 LDCs의 서비스 수출액은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32% 감소하였고, LDCs의 총 수출에서 공산품이 차

지하는 비중은 2012년 22%에서 2022년 35%로 증가했지만 주로 섬유, 의류 등 단순 제조품에 집중되었다(UNCTAD 2024a).

마. 부채 및 부채지속가능성

코로나 19 팬데믹, 지정학적 갈등, 기후 위기 등의 충격으로 인하여 부채서비스 비용이 상승하면서 개발도상국의 부채위기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UNCTAD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개발도상국이 의료나 교육과 같은 필수 서비스보다 부채 상환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UNCTAD 2025). 이렇게 누적된 공공부채로 인하여 부채 취약성이 심각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며, 높은 부채 비용에 시달리는 국가들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부채가 많은 국가들이 SDGs에 대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면서 부채 위기 예방을 강화하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동의제의 주요 논의 방향으로 삼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부채와 부채지속가능성 의제의 진척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말까지 다자간 채무구제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이 37개 참여국의 부채를 1,000억 달러 이상 탕감하였다(OECD 2025c). 또한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의 국채 시장이 크게 성장하여 2007년 약 1조 달러에서 2023년 약 4조 달러로 거의 네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또한 IMF와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부채 관리 관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지원 및 부채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World Bank 2023).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세수의 20% 이상을 부채 상환에 지출하고 있는 국가가 25개국이며 2024년에는 92개국이 SDGs 투자보다 외부 공공부채 상환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OECD 2025c). 개발도상국의 외부 차입에 대한 평균 이자 비용은 선진국보다 3배 높으며(Spiegel & Schwank 2022), 부채 부실 또는 부채 부실 위험이 높은 LICs의 비율은 2015년 27%에서 2023년 56%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World Bank 2024).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개발도상국의 신용 품질이 악화되어 2024년 1분기까지 약 100개의 신흥개발도상국 중 60%에 가까운 국가가 낮은 신용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 10개국 이상이 디폴트에 가깝거나 디폴트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OECD 2025c).

바. 국제금융구조 및 시스템 문제

시스템 문제 해결이 개발재원총회에서 중요한 행동의제로 포함이 된 것은 국제통화, 금융 및 무역 시스템의 일관성과 거버넌스가 개발도상국의 개발노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금융시스템은 지속가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저렴한 장기 자금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개발도상국은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긴박한 글로벌 금융 상황, 지정학적 불확실성, 팬데믹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개발도상국의 자금 조달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

벌 금융 안전망은 확장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의 안전망에 대한 접근성은 여전히 떨어진다. 현재 국제기구 내 이들 국가의 대표성이 불충분하다는 불만과 함께 IMF 쿼터 조정, 세계은행 의결권 조정, 국제기구 이사회 규모 확대, 국제기구의 지리적 과소 대표성 문제 해결, 국제기구의 의사결정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등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또한 기후변화, 금융 및 경제 위기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개발도상국이 유동성 및 금융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금융 안전망의 규모, 범위,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IMF의 양허성 대출 확대, 신규 특별인출권[2](Special Drawing Rights, SDR) 발행, 미사용 SDR의 50% 신속 사용 약속 및 독려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시스템 문제에 있어 개선상황을 살펴보면 글로벌 양자간 스왑 라인 네트워크는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유동성 지원을 제공하여 글로벌 금융시장과 신흥 시장 및 개발도상국으로의 자본흐름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하였다. IMF는 대출을 대폭 확대하고 개발도상국과 취약국의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툴킷을 조정하였다.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IMF가 LICs에 승인한 신규 양허성 대출은 57억 달러였으며, 이는 2015년 회계연도에 승인한 18억 달러의 세 배에 달하는 규모이다(OECD 2025c). 또한 2021년 6,500억 달러의 특별인출권을 추가로 할당하여 각국이 국제수지 문제를 해결하고 유동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글로벌 양자간 스왑라인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국제 준비금의 97%는 전 세계 경제의 약 절반이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3%를 약 90개의 취약한 신흥개발도상국 그룹이 차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목소리와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제금융기관과 표준 제정 기구에서 개발도상국의 대표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개발도상국 회원수는 IMF와 세계은행에 75%를 차지하지만 의결권은 각각 37%와 39%에 불과하다(United Nations 2024b). 세계 경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개발문제의 상호연결성으로 개별 국가의 정책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을 높이는 것도 여전한 과제로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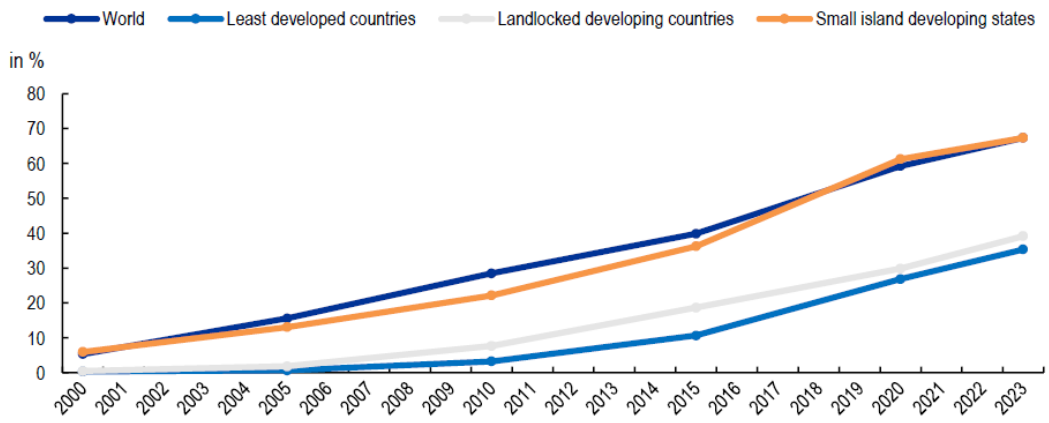
사. 과학, 기술, 혁신 및 역량 강화

과학기술혁신(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은 SDGs 달성의 핵심 동력 중 하나이다. 기술의 발전은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과 의료 개선을 이끌고, 경제 성장을 뒷받침한다. 물론 규제되지 않은 기술발전은 경제 및 사회적 결과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환경파괴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또는 국가 내 혁신역량, 연결성, 기술 접근성의 불균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술 발전으로 인한 혜택을 충분히 누리

2) 특별인출권은 국제통화기금(IMF) 가맹국이 국제 수지 약화 때 담보없이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통화이다.

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술 보안 분야에서 주요 행위자들이 지배력이 커지면서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이전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과 같은 기술은 제한된 역량을 가진 개발도상국에서는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발도상국이 복원력있는 디지털 공공 인프라와 디지털 공공재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의 유연한 적용, LDCs로의 기술이전, 오픈 사이언스 생태계 주체들 간의 국내 및 국제협력강화, 유엔 기술촉진 메커니즘 강화 등 기술발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 포용과 금융 건전성 달성을 위해 개발도상국이 금융기술(핀테크) 개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림 5〉 전세계 인터넷 사용 인구



자료 : OECD 2025c, 205

STI 분야의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2023년에 전 세계 인구의 약 67%인 54억 명이 온라인에 접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5년 이후 50%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었다(그림 5 참조). 3G 이상의 모바일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전 세계 인구 비율은 2015년 78%에서 2023년 95%로 증가하여 보편적 접속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OECD 2025c). 그러나 전 세계 특허 출원의 87% 이상을 상위 10개 국가가 차지하고 있으며, 스마트 제조 분야의 특허 활동의 90%가 단 10개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 7개 국가의 산업 기업이 녹색 기술 분야 전체 특허 활동의 90%를 차지한다(United Nations 2024). 특정 국가에 몰린 혁신과 투자가 개발도상국의 기술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LDCs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상표 출원

건수는 2,197건으로 전 세계 평균인 26,034건과 다른 개발도상국 평균인 24,789건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다(OECD 2025c). 한편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메커니즘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 총회를 통해 2016년 설립된 저개발국을 위한 기술은행의 경우, 터키 정부가 유일한 자발적 기부자로 연간 170만 달러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기관 직원 비용의 60%에 불과한 금액이다. 개발도상국은 재생 에너지 기술, AI 기술, 사이버보안 기술 등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뒤쳐져 있다(OECD 2025c).

Ⅳ. 이슈별 주요 쟁점

가. 국내재원동원

국내재원동원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국제조세협력이다. 그 이유는 국내개발재원의 상당한 비중이 세금을 통해 동원되어야 하나 세계화, 다국적 기업 확대, 사업 모델 변화로 인해 이익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세원 잠식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3] 즉, 개발에 사용될 수 있을 세금을 제도의 한계로 걷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는 여러 국가의 조세 제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간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다. 글로벌 기업이 각 국가의 서로 다른 조세제도와 조세조약을 활용하여 세금을 회피하거나 줄이려고 애쓰는 가운데 조세제도가 약한 개발도상국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수익이 발생한 국가에서 이익을 분리하여 세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다른 국가로 그 이익을 이전하여 세금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OECD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로 인해 발생한 전 세계 법인세 손실이 2014년 기준 연간 최대 약 2,4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이에 2012년 G20 회원국은 OECD 재정위원회와 함께 세원 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방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2016년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f BEPS(IF)가 출범하였다. OECD는 100여 개국의 비회원국을 모아 협상을 하며 '두 기둥 해법(Two pillar Solution)'[4]에 대한 의견을 모았고, 2021년 138개국 및 관할지역에서 원칙적으로 이 해법을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이유에디터 2024). 그러나 선진국에 유리한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개발도상국의 주장은 유엔 차원에서 조세협력체계를 논의하자는 목소리를 이끌어냈고, 2023년 11월 아프리카 국가들의 요청으로 유엔은 국제 조세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결의안을 승인하였다. 이 결의안의 최종 목표는 국제조세기구를 만들고 '국제조세협력 유엔프레임워크협정(UN Framework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ax Cooperation)' 이라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G77과 중국은 이 유엔협정에 대한 내용을 총회 결과문서에 넣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세계 경제와 금융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가장 포용적인 다자간 포럼으로 유엔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G77 & China 2025d). 그러나 EU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OECD가 먼저 추진한 IF

3) 우리나라 또한 다국적 기업이 내는 법인세수 비중이 7%로 OECD 평균 22%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김규성 2024).
4)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 1"과 글로벌 최저한세의 "필라 2"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필라 1은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 일부의 과세권을 시장소재지국에 재배분하는 "Amount A"와 다국적기업의 통상적인 마케팅·유통 활동과 관련하여 이전가격 분쟁을 축소하여 과세당국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Amount B"로 구성되어 있다. 필라 2는 다국적 기업그룹의 관할국별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세액(top-up tax)'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을 지지하며 유엔협정에는 반대하는 상황이다. EU는 G20-OECD 프레임워크 하에서 이미 이루어진 국제조세협력을 인정하고, 이를 지속 발전시키며 유사한 형태의 협력이 중복되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이다(EU council 2025). EU는 총회 준비위원회를 통해 FFD4가 유엔 내외의 관련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의사 결정 과정을 선점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표명하였다. 또한 유엔, 국제금융기관, WTO, 파리클럽, 금융안정위원회, OECD, G20등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내 기존 위임 사항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3차 준비위에서 국제조세협력 유엔프레임워크협정의 목표가 미국의 우선순위와 상충하며 협정 내용 조정에 참여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심지어 이 기본협력 과정의 결과를 거부하고 반대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나. 국내 및 해외 민간재원

국내 및 해외 민간재원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주제는 현재 신용평가 방법론 개정이다. 사실 신용평가 방법론은 국내 및 해외 민간재원 의제 뿐만아니라 부채와 부채지속가능성, 국제금융체계 및 시스템 이슈와도 관련이 있다. 개발도상국 내 자금조달 프로그램이 잘 설계되어 있고, 국가 경제가 잘 관리되고 있고, 투자 프로그램이 인프라, 인적자본, 사업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서 최종대부자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면 해당 국가는 좋은 신용등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빈곤국들이 매우 높은 성장 잠재력과 높은 투자수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SDSN 2025). 따라서 신용평가기관이 이런 요소들을 반영하여 평가방법론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개발도상국의 민간부문 기관 신용등급에 적용되는 국가 신용등급 상한제라는 관행이 있는데, 이 제도에 따르면 민간 부문 차입자는 자신의 경영상태와 관계없이 국가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없다. 이에 G77과 중국을 비롯한 여러 개발도상국은 신용평가 기관의 규제와 신용평가 방법론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캐나다, 미국, EU 등은 신용평가기관의 방법론에 개입하는 또한 공공부문이나 유엔이 개입할 사안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US mission to the UN 2024d).

송금비용 관련해서는 G77과 중국을 중심으로 송금비용 인하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미국 예산안에 비시민이 보내는 송금에 3.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쟁점으로 부각될 개연성이 있다(Chase-Lubitz 2025a). 송금비용은 일반적으로 송금은행의 수수료, 환전 수수료, 수신은행의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환전 수수료는 송금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불투명한 정보로, 은행 간 또는 도매시장보다 높은 마진이 포함된 환율을 송금인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송금인은 어떤 환율로 적용될지 알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송금비용의 불투명성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Kaarmann 2021; World Bank 2007). 한편, 외국인의 본국 송금은 다른 민간재원과 비교했을 때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에 유용하다(Ratha n.d.). 그래서 송금 과정 중 손실되지 않고 가능한 많은 금액이 개발도상국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국제사회가 송금수수료 인하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강동관

2014). 세계은행에 의하면 국제송금평균비용이 2024년 3분기 기준 6.62%으로 2015년 8%에 비하며 줄어든 상황이지만 3%라는 목표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5] 그런데 현재 비용에서 앞선 얘긴한 것처럼 세금까지 추가된다면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다.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에서는 GNI대비 ODA 비율, 기후재원에 대한 입장, 인도적지원-개발-평화 연계, TOSSD를 결과문서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나눠질 것으로 보인다. 총회 준비 초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유엔의 오랜 목표치인 GNI 대비 ODA 비율 0.7%와 LDCs에 대한 ODA/GNI 최소 0.2% 목표에 대해 구체적이고 구속력있는 기간 설정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달성 기한 설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2024년 ODA 잠정통계가 2,121억 달러로 전년대비 실질기준으로 7.1% 감소된 것이 확인되어 5년 연속 증가 이후 첫 감소에 라는 측면에서 달성 기한을 설정하자는 주장이 다시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총회 4차 준비위원회에서 G77과 중국은 ODA 0.7% 목표 달성을 위한 공약 확보 및 최근 ODA 삭감을 반전시키기 위한 정치적 공약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G77 & China 2025b). 기후 및 생물 다양성 관련 해당 논의가 진행된 각 포럼의 결정에 한발 더 나아가 선진국의 기후 재원 제공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을 비롯한 G77 개발도상국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게다가 기후 재원이 개발재원의 일부가 아닌 새롭게 추가되는 재원이어야하며 중복 계산을 경계해야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G77 & China 2025b). 또한 이들은 HDP Nexus 개념이 명확하게 합의된 바가 없는 상황에서 개발재원총회에 인도주의적 사안이 혼재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OECD의 주도로 개발된 통계척도인 TOSSD에 대한 내용이 결과문서에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하고 있다. 동시에 유엔의 개발재원포럼을 강화하여 개발협력의 규범설정 및 모니터링에 있어서 가장 포괄적인 조직으로서 유엔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기를 바라고 있다(G77 & China 2025b). 현재 개발협력의 규범설정을 주도하고 있는 OECD의 DAC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려는 개발도상국의 의도를 엿 볼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은 수원국 주인의식, 정책일관성, 상호 책임성 등 개발효과성 의제에 대한 재 환기와 이행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EU, 스위스, 호주 등이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5) 200달러를 송금할 때 드는 수수료의 비율이다. 우리나라의 국제송금평균비용은 2024년 3분기 기준 5.59%로 G20 국가 중 호주 다음으로 비용이 저렴한 수준이다(세계은행 2024). 이는 2017년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으로 인하여 국내에서도 비금융회사의 해외송금업이 허용됨에 따라 다양한 송금방식과 기존 은행 대비 빠른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율로 인하여 소액해외송금업체가 점점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GPEDC) 활성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EU는 ODA 통계의 가치와 ODA 모니터링에 있어 OECD/DAC의 역할을 강조하며, 2030 의제 이행에 기여하는 자원을 더 잘 측정하고 이에 대한 투명성과 지식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한 통계척도인 TOSSD 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도 ODA와 함께 TOSSD를 인정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TOSSD가 유엔 통계위원회와 총회에서 SDG 17.3.1 지표로 검토를 거쳤음을 강조하고 있다(US Mission to the UN 2024a). 또한 결과문서 초안(Zero draft)에 드러나지 않았던 인도적지원-개발-평화 연계가 수정안(First draft)에 등장하게 된 것은 EU가 초안에 대한 의견으로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40%가 갈등의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염두해두고, 평화구축의제를 결과문서에 포함해야 함을 주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EU 2025). 또한 EU는 국제개발협력에서 유엔의 규범적 역할을 확대하려는 제안이 분열과 중복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EU 2024).

라. 개발동력으로서의 국제무역

국제무역에서는 이해관계 차이, 농업보조금, 특별 및 차등 대우, 무역 분쟁 해결 등의 문제에 대한 선진국와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 불일치가 전체적인 합의 도출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예를 들어, 결과문서 초안에는 농업보조금 철폐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후에 나온 수정안에는 해당 내용이 모두 삭제되었다. 막대한 농업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입김이 반영된 수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초안과 수정안에서 촉구하고 있는 WTO 수산보조금 협정 마무리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 선진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업보조금이 식량안보와 생계를 위한 어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게 유해하고 불균형적 영향을 미치지만, 선진국은 이 수산보조금 폐지 협정의 국내 발효를 최대한 늦추고 있다. 이에 G77과 중국은 WTO가 2022년 어업보조금 협정을 채택한 것을 상기시키며 WTO 회원국들이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수락서를 기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진국들이 환경 보호를 구실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방적인 조치, 예를 들어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탄소집약적인 제품이 EU로 수입될 때 탄소 배출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등을 취하고 있는 문제를 결과문서에 담아야 한다는 개발도상국의 주장도 무역 의제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G77과 중국은 환경 목적을 위한 무역 정책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입국의 관할권 밖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방정직 조치는 피해야 하며, 국경 간 또는 지구적 환경 문제를 다루는 환경 조치는 가능한 국제적인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G77 & China 2025c).

EU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공약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이 일방적인 환경 무역 조치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으며 철저한 영향 평가에 기반하여 수입품을 국내 생산품과 차별하거나 다르게 취급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설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EU 2024). 미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이후 관세 인상과 보호무역주의가 증가하고 있어 무역이 개발의 엔진이 되어야 한다는(trade needs to be an engine for development) 문구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Chase-Lubitz 2025b). 또한 FFD4 절차가 무역 정책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으며, 이유는 무역 정책은 WTO에서만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Hilbrich et al 2025).

그래서 금번 총회에서 무역 의제의 방향 설정은 첫째 권력 기반이 아닌 규칙 기반의 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쪽으로, 둘째 개발도상국이 세계 시장에 접근할 때 직면하는 공식적 장벽을 줄이는 쪽으로, 셋째, 환경적 이유로 인한 새로운 제재들은 특정 그룹이 아닌 모든 생산자를 지속가능성의 길로 이끄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Tipping 2025).

마. 부채와 부채지속가능성

개발도상국의 부채 위험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파리 클럽이(Paris Club) 있다. 파리 클럽은 OECD 일부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발족한 국제 채권국가 협의체로 1956년 아르헨티나의 채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관련 채권국들이 파리에 모였던 것이 그 시작이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국과 채권국이 한자리에 모여 채무 기한 연장 및 기타 다른 제도적 장치를 통해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글로벌 보건 위기 이후, 파리 클럽으로는 개발도상국의 채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LICs를 위해 채무를 유예하는 제도인 채무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 DSSI)를 도입하여 적격 국가에 현금 유동성 구제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 채무 유예 적격 국가에 대해 사례별로 보다 심층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 G20과 파리클럽이 함께 채무 처리를 위한 공동프레임워크(Common Framework, CF)를 마련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는 IMF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부채지속가능성 분석을 통해 생성된 부채 탕감 목표를 기반으로, 예외적인 상황에서 부채를 탕감하는 것을 포함하여, 부채 재조정과 부채 탕감을 통해 저소득 국가의 근본적인 부채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Grigorian 2024). 이 프레임워크에는 파리클럽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채권국가들(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민간 채권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프레임워크 자체가 국제 부채 구조개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IMF와 파리클럽이 채무 재조정 절차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 파리클럽 부채 구조조정의 순차적 절차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Li & Chowdhary, 2024). 2025년 현재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차드, 잠비아, 가나 3개국이 부채 구조조정에 성공하였고, 에티오피아는 마지막 단계인 양해각서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프레임워크를 통한 부채 구조조정 규모가 너무 작고 늦고 복잡하여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Chen & Hart 2025). 프레임워크의 낮은 참여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절차가

너무 오래걸린다는 것이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3년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시민사회 대표,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행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부채 구조조정 프로세스에 대한 합의를 구축하는 비공식포럼인 글로벌 국가채무원탁회의(Global Sovereign Debt Roundtable, GSDR)가 설립되었다. 원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프레임워크에 환류하여 부채 조정 절차에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프레임워크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부채 문제 또한 유엔을 통한 협의체를 마련하여 해결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G77과 중국은 부채와 부채지속가능성 관련해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의견도 내지 않은 상황이다. 동 의제를 논의하는데 있어 가장 이해 관계가 높은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DSSI 적격국가 가운데 절반이 넘는 나라의 주요 채권국으로 국가별로 중국 채권의 비중이 평균 54%에서 최고 72%에 이른다고 한다. 파리클럽 22개 회원국이 보유한 채권의 비중은 평균 21%이며 최고 40%를 넘지 않는 상황과 비교해보면, 단일 국가로서 중국이 개발도상국의 부채 구조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왕리웨이 2023).

반대로 미국은 지난 몇 년간 진행한 공동프레임워크와 GSDR를 의미있는 진전이었다고 평가하며, 현재 진행 중인 부채구조조정 절차의 투명성, 시의성, 효율성 개선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 한발 나아가 새로운 정부 간 절차와 다자간 메커니즘에 대한 요구는 지금까지의 진전을 퇴보시키고, 더 빠르고 예측 가능한 공동프레임워크와 부채 구조조정 절차를 추진하고, 책임있는 대출 및 차입 원칙을 채택하려는 추진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US mission to the UN 2024b). 미국은 3차 준비위원회 이후, 유엔의 부채 관련 정부 간 절차를 요구하거나, 세계부채구조에서 유엔이 위임받지도 역할을 제안하는 결과문서는 수용할 수 없음을 강하게 밝혔다(US mission to UN 2025). EU는 세계 부채 취약성이 SDGs 달성을 위협하는 과제 중 하나라는 평가에 공감하고 건전한 공공부채 관리 및 부채 투명성은 부채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불투명한 조건으로 대출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국제적 규제와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부채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European Parliament 2025). 또한 최근 G20 부채 처리를 위한 공동프레임워크 안팎에서 이루어진 부채 구조조정 사례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이 프레임워크에 따른 채무 처리 절차가 채무국에 더욱 시의적절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우선순위가 새로운 부채 구제수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 시작한 이니셔티브의 실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EU 2024).

바. 국제금융체계 및 시스템 이슈

시스템 이슈 의제에서 가장 큰 이슈는 국제금융구조 개혁이다. 개발도상국은 IMF와 World Bank

로 대변되는 국제금융체계가 1944년 수립된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국제경제 및 국제정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Global Policy Watch 2025). 그래서 국제금융기관의 거버넌스에서 개발도상국의 발언권과 참여를 강화하라는 의견이 G77과 중국을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다. G77과 중국은 IMF의 기본 투표권을 전체 투표권의 1/9로(약11%) 회복하고[6], 세계은행 지분구조 개혁이 형평성, 효과성, 정당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수립한 리마지분원칙(Lima Principle)에 따라 2025년에 지분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이 미사용한 SDR의 50%를 개발도상국으로 재투자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개발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간 3,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SDR 발행을 요구하고 있다. EU 또한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의견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의 국제금융체계가 많은 국가들이 아직 식민지배를 받고 있을 때 만들어 졌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개혁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G7 국가들이 절대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목소리와 대표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효과성과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관, 특히 다자개발은행의 포용성과 개혁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EU Council 2025).

그러나 미국은 IMF, 세계은행 및 기타 다자개발은행의 대표권, 지분, 할당량 및 의결권, 자금 지원 규모와 조건 등은 해당 기관의 각 운영기구의 권한으로 유엔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US mission to the UN 2024c). 미사용 SDR를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나 다자개발은행으로의 배정을 통해 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결과문서가 국가주권과 WTO, OECD, 국제금융기관 등 다른 기구의 독립성을 침해하므로 해당 기관의 관할권에 속하는 결정이나 절차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세금, 부채, 무역과 관련된 특정 제안들은 중복되고 해당 주제가 관련된 포럼에서 논의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US mission to the UN 2025).

사. 과학, 기술, 혁신 및 역량 강화

총회 준비위 회의가 진행되면서 STI 의제 내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주제이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감한 부분이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인프라와 디지털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투자 또는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었다. 그러나 양측의 의견이 상이한 것도 있었다. G77과 중국은 STI 의제에서 글로벌 연구, 기술 이전 및 모범사례를 촉진하고, 개발도상국이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자간 기금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IISD 2025). 또한 AI와 같이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기

6) IMF의 투표권은 2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모든 회원국들이 250단위로 부여받는 기본투표권이고 다른 하나는 기본투표권에 이어 추가로 받는 쿼터기준투표권이다. 쿼터기준투표권은 자신이 받는 쿼터(IMF에 대한 회원국의 출자지분을 의미함)의 10만 특별인출권 당 1단위로 받는 투표권이다. 그동안 기본 투표권은 변하지 않았으며 쿼터기준투표권만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총 투표권 중 기본투표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게는 12.4%였으나 현재는 2.1%까지 낮아졌다.

술 관련, 거버넌스 및 규범 설정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서 개발도상국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AI 담론을 형성하는데 있어 개발도상국의 목소리, 대표성, 그리고 기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G77 & China 2025). 또 다른 개발도상국인 브라질은 STI 논의에서 현실적으로 자발적인 기술 이전을 달성하기위한 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유엔의 기술 촉진 메커니즘과 같은 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발적인 조건과 합의된 조건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기술 이전으로 발전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Global Policy Forum 2025).

반면, 미국은 기술 이전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 강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이전 조건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또한 미국은 유엔이 지적 재산권을 규정할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US mission to UN 2025). 일본은 기술 이전에는 대부분 민간 부문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 및 영업비밀과 같은 지적 재산이 포함되며, 강제 이전을 피하려면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TRIPS 유연성에 대해서는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TRIPS가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국제적 공통의 이해가 없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Global Policy Forum 2024). 즉 TRIPS 유연성과 지속가능발전 사이의 증명된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TRIPS 유연성의 효용 측면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EU 또한 자발적이고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른 기술이전과 지식 공유 및 역량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EU Council 2025).

아. 종합분석

지금까지 살펴본 각 의제별 쟁점을 바탕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몇 가지 점들을 확인 할 수 있다. 첫째, 수원국 내 공공재원과 국내외 민간재원, 혼합금융에 대한 관심과 강조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미국을 필두로 최근 발표된 주요 공여국의 ODA 예산삭감은 국가들로 하며금 개발재원총회에서 공약을 발표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으며, 다른 출처로부터의 재원을 확대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ODA 예산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수원국 내 공공재원과 국내외 민간재원 확대이다. 특히 민간재원 확대를 위해 공공자금을 활용하는 혼합금융에 대한 관심이 그 어떤 때보다 커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개발효과성 논의가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효과성은 2011년 부산개발원조총회 이후로 개발협력담론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다. 그러나 ODA 예산이 한정된 또는 삭감된 현실에서 그리고 SDGs 달성 기한이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동일한 규모의 재원을 더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를 다시 고민하게 되었다. 결과문서 초안에는 없었던 개발효과성이라는 표제어가 최종 결과문서에 등장한 것만으로도 이 논의가 다시 주목을 받을 개연성이 커졌다. 셋째,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과 의견차이가 큰 의제들을 모두 UN체계 안에서 논의하기를 희

망하고 있다. 두 그룹의 의견이 가장 차이가 나는 의제가 가장 진전이 더디기도 하다. 국내재원동원 내 국제조세협력, 부채와 부채지속가능성, 국제금융체계 및 시스템 이슈가 가장 이견이 있는 주제들이며, 이것은 앞서 표 2에서 국내재원동원과 국제무역에서 개발도상국의 수출 관련 세부 목표 달성이 정체되어 있고, 부채와 부채지속가능성과 시스템 이슈 중 일부 목표 달성이 후퇴한 상황과 일치한다. 국제조세협력은 OECD가, 부채탕감은 G20과 파리클럽이, 국제금융체계는 선진국이 대부분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IMF와 World Bank가 다루고 있는 등 모두 선진국이 결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자신들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체계로부터 이 의제들을 가져와 자신들이 1표라도 의결권을 발휘할 수 있는 UN체계 안에서 논의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총회 시작 2주전 최종 합의되어 공개된 결과문서를 통해 다자주의가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여전히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미국은 협상 과정 내내 무역, 금융시장규제, 부채탕감, 국제조세협력, 양성평등 등 여러 쟁점을 언급하는 표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결과문서에서 의미있는 내용을 모두 삭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협상 철수 및 FFD4 불참 선언과 동시에 결과 문서가 승인되었고 이는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다자주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FFD4를 앞두고 국제개발협력지형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USAID와 국무부의 통폐합을 비롯하여 최근 발표된 영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등 공여국들의 상당한 규모의 ODA 삭감은 개발 원조의 효과에 대한 신뢰 상실과 개발 자금 지원 자체에 대한 거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Kent 2025). 이번 총회에서 개발도상국이 정치적 구속력이 있는 최소한의 합의를 요청하기에 충분한 환경변화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은 초안을 30페이지에서 30 단락으로 줄일 것을 제안하며, 문서가 간결하고, 자발적이며, 구속력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정명령에 명시된 미국 정책과 상충되는 어떠한 문구도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으며, 성별 이념 관련 표현을 거부하고, 문서 전반에 걸쳐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그리고 녹색금융에 대한 언급도 유보하였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FFD4 결과문서의 채택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FFD는 다른 금융 중심 포럼과 달리 저소득 및 중소득국에게 협상에서 동등한 발언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도가 다르다. 또한 FFD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는 않지만 개발 측면에서 각 국가들에게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총회 결과문서는 만장일치로 합의되지만 만장일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문서 채택 결정을 내릴 수 있다(Hilbrich 2025). 즉, 미국의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계는 계속 전진해야 하며, 한국을 비롯한 타 주요 공여국이 그 역할을 이어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개발협력 정책 방향을 가져가야 할까? 네 가지 정도로 제시해 볼 수 있겠다. 첫째, GPEDC 활성화와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총회를 준비하는 기간 내내 우리 대표단은 GPEDC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개발효과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타 공여국 또한 GPEDC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결과문서에서 개발효과성이 표제어로 자리한 만큼 향후 개발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재환기 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이 부족하면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쓸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또한 개발효과성과 GPEDC는 개발도상국과 공여국 모두가 이행에 동의하는 의제이기도 하다. 원조효과성을 위한 고위급회의가 2011년 부산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된 이후 만들어져 개발효과성을 측정하던 메커니즘인 GPEDC를 활성화하고 확대하여 여러 개발도상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재원 동원 노력을 지금보다 더욱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총회 준비위 논의 흐름을 보면 개발도상국은 무상 ODA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 선진국은 개발도상국 내 공공재원과 함께 국내외 민간재원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원조에서 산업화로의 전환을 언급한 Usman(2025)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산업화는 공공재원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국내외 민간부문에서의 투자도 같이 이루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여국들의 ODA 예산 감소 기조로 인해 민간재원동원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축소되는 ODA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자 한다면 선진국들은 더 많은 ODA를 민간재원동원의 촉매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3년 말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PSI ODA 계상 방법 합의가 이러한 예측에 무게를 실어 주고 있다. 한국이 ODA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이지만, 한편으로는 주요 공여국들이 개발협력의 지원형태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 PSI 제공 기관과 건수,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단순히 매칭 자금을 민간재원 동원 금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SDGs 분야 쪽으로 민간 투자 자금이 흘러갈 수 있게 하는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민간재원 동원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셋째, DAC 뿐만 아니라 유엔의 개발재원포럼(Forum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에도 적극 참여 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은 공여국 클럽이라고 알려진 OECD DAC가 아닌 유엔의 개발재원포럼에서 원조의 규범과 원칙을 논의하고 싶어 한다.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원조제공자가 자신들에게 적용해야 하는 규범을 자신들끼리만 모여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 모순되고 불합리하다고 여겨지기 때문 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알고 있는 DAC 또한 개발협력에서 본인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다시 정의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DAC만이 개발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모임이 아니라는 현실인식을 가지고 대안으로 부상할 수도 있는 개발재원포럼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논의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개발정책일관성 개선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실질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외교부는 총회 준비위에 참여하면서 결과문서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 중 타 정부부처의 의견이 필요한 내용들을 해당 부처로부터 취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조세, 부채, 시스템 이슈는 기획재정부와 관련되어 있고, 민간재원과 무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되어 있으며, STI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개발재원은 국내 개발협력정책 뿐만 아니라 타 부처의 정책과도 연계되어 있어, 해당 부처가 정책 결정시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볼 수 있어야 개발재원을 전방위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 2018년 DAC 동료검토에서 한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경제, 사회, 및 환경 정책 간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기체를 구축해야함이 권고되었고, 2024년 동료검토에서도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임무에 기반하여 부처의 이행계획을 검토하고 국내 정책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초국경적 영향을 고려해 대응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기능을 활용하여 부처간 정책 심의에 개발관점을 도입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있었다. 정책일관성 개선 노력을 통해 개발재원 논의에 대한 타 정부부처의 관심과 기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세와 부채 관련 OECD와 G20 내 기존 조정 메커니즘을 보류하고 유엔으로 논의를 가져오려는 개발도상국의 의견과 입장에 주의를 기울이며 진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한국에게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23년 11월 아프리카 국가들의 요청으로 유엔에서 국제 조세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EU 등이 이들의 주장에 반대되는 입장을 내고 있기 하지만, 미국이 FFD4에 참석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였고 이로 인해 반대 입장을 가진 국가들이 모일 구심점이 약해진 것이 사실이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양쪽의 입장을 잘 살피며 우리에게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결정이 무엇인지 사안이 바뀔 때 마다 세심하게 분석하고 살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개발협력지형 변화를 어떤 이는 원조산업의 종말이라 이야기하고, 어떤 이는 세계 개발 거버넌스의 개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올해 FFD4 의제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세계 경제 거버넌스의 민주화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 구조에서 동등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개발도상국이 한 목소릴 내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어찌보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거듭난 한국은 이러한 다이내믹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강동관. 2014. “외국인 송금과 송금 비용의 쟁점.” **IOM 이슈브리프** 2015-10. https://www.mrtc.re.kr/data/04.php?admin_mode=read&no=281&make=&search=&s_url. (접속일 : 2025.4.25)

김규성. 2024. “다국적기업 법인세수 비중 7% 불과.” 파이낸셜 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410201828413303. (접속일 : 2025.4.25)

박수영, 오수현. 2015. “제3차 개발재원총회와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의 함의 분석.” **개발과이슈** 24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왕리웨이. 2023. “최대 채권국 중국 참여 본격화.” Economy Insight.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48. (접속일 : 2025.4.1)

이유에디터. 2024. “노벨상 스티글리츠 유엔조세협약 방해 한미일 성토.”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46. (접속일 : 2025.4.25)

정지원, 정지선. 2008. “도하 개발재원회의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No. 43.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10000&bid=0003&list_no=3081&act=view. (접속일 : 2025.4.25)

정지원, 정지선. 2011.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 동향과 한국의 정책과제**.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s://www.kiep.go.kr/galleryDownload.es?bid=0001&list_no=1611&seq=1. (접속일 : 2025.4.25)

Chase-Lubitz, Jesse. 2025a. “Devex Invested: What we’re watching at Financing for Development in Seville.” Devex. https://www.devex.com/news/devex-invested-what-we-re-watching-at-financing-for-development-in-seville-110265. (접속일 : 2025.6.10)

Chase-Lubitz, Jesse. 2025b. “What is Financing for Development 4 and why is it a big deal?” Devex. https://www.devex.com/news/what-is-financing-for-development-4-and-why-is-it-a-big-deal-110110. (접속일 : 2025.5.30)

Chen, Yunnan and Tom Hart, 2025. “Common framework, uncommon challenges: lessons from the post-COVID debt restructuring architecture.” ODI. https://odi.org/en/insights/

common-framework-uncommon-challenges-lessons-from-the-post-covid-debt-restructuring-architecture/. (접속일 : 2025.4.26)

EU. 2024. “EU Statement - UN Second Preparatory Committee ahead of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 General Debate.” https://www.eeas.europa.eu/delegations/un-new-york/eu-statements-%E2%80%93-un-second-preparatory-committee-ahead-4th-international-conference-financing_en. (접속일 : 2025.5.4)

EU. 2025. “EU Statement - UN General Assembly : Presentation of the Zero draft for the 4th Financing for Development Conference.”https://www.eeas.europa.eu/delegations/un-new-york/eu-statement-%E2%80%93-un-general-assembly-presentation-zero-draft-4th-financing-development-conference_en. (접속일 : 2025.5.4)

EU Council. 2025. “Pathways to progress: maximising impac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lobal prosperity - Council conclusions ahead of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9394-2025-INIT/en/pdf. (접속일 : 2025.6.1)

European Parliament. 2025. “Report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 ahead of the Four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in Seville.”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A-10-2025-0101_EN.html. (접속일 : 2025.6.1)

G77 and China. 2025a. “Statement on behalf of the group of 77 and China delivered by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Iraq at the fourth session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four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 panel discussion 3: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and Capacity Building.” https://www.g77.org/statement/getstatement.php?id=250430c. (접속일 : 2025.5.20)

G77 and China. 2025b. “Statement on behalf of the group of 77 and China delivered by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Iraq at the fourth session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four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 panel discussion 5: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ttps://www.g77.org/statement/getstatement.php?id=250501b. (접속일 : 2025.5.20)

G77 and China. 2025c. “Statement on behalf of the group of 77 and China delivered by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Iraq at the fourth session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four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 Panel discussion 6 : trade as an engine for development.” https://www.g77.org/statement/getstatement.php?id=250501c. (접속일 : 2025.5.20)

G77 and China. 2025d. “Statement on behalf of the group of 77 and China delivered by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Iraq during the permanent representatives’ intersessional consultations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four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during its consideration of the first draft outcome documents of the conference.” https://www.g77.org/statement/getstatement.php?id=250324. (접속일 : 2025.4.25)

Global Policy Watch. 2025. “Towards Reform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https://www.globalpolicywatch.org/futureofglobalgovernance/index/h-towards-reform-of-the-international-financial-architecture/. (접속일 : 2025.5.20)

Global Policy Forum. 2025. “3rd Preparatory Committee for upcomin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https://www.globalpolicywatch.org/blog/2025/03/11/round-up-9-3rd-preparatory-committee-for-upcoming-international-conference-on-financing-for-development-ffd4/. (접속일 : 2025. 4.16)

Grigorian, Dvaid. 2024. “A Modified Common Framework for Restructuring Sovereign Debt.” CGD. https://www.cgdev.org/blog/modified-common-framework-restructuring-sovereign-debt. (접속일 : 2025. 4.16)

Hilbrich, Soren. Yabibal Walle and Clara Brandi. 2025. “Trump and FfD4 – the Elephant in the Room Starts to Speak (and Destroy).” IDOS. https://blogs.idos-research.de/2025/02/21/trump-and-ffd4-the-elephant-in-the-room-starts-to-speak-and-destroy/. (접속일 : 2025. 4.16)

IISD. 2025. “Summary report, 10-14 February 2025.” https://enb.iisd.org/precom3-international-conference-financing-development-ffd4-summary. (접속일 : 2025. 4. 25)

Kaarmann, Kristo. 2021. “Ending remittance hidden fe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lls for action.” https://blogs.worldbank.org/en/peoplemove/ending-remittance-hidden-fees-

international-community-calls-action. (접속일 : 2025.4.12)

Kent, Lauren. 2025. "The UK, Germany and Canada have slashed foreign aid this year, deepening damage done by US cuts, analysis shows." CNN. https://edition.cnn.com/2025/06/12/europe/foreign-aid-cuts-uk-germany-canada-intl. (접속일 : 2025.6.15)

Li, Yuefen and Abdul Muheet Chowdhary. 2024. "South Centre Inputs to FfD4 Elements Paper - Debt Sustainability, Business and Finance, Taxation." *Policy Brief* No.133. https://www.southcentre.int/wp-content/uploads/2024/11/PB133_South-Centre-Inputs-to-FfD4-Elements-Paper_EN.pdf. (접속일 : 2025.4.5)

OECD. 2023. "Private finance mobilised by official development finance intervention." *OECD Development Perspectives*. No. 29. OECD. Paris.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23/01/private-finance-mobilised-by-official-development-finance-interventions_b2e9927e/c5fb4a6c-en.pdf. (접속일 : 2025. 5.10)

OECD. 2025a. "About the OECD's global work against foreign bribery and corruption." https://www.oecd.org/en/networks/global-engagement-on-anti-corruption-and-anti-bribery.html. (접속일 : 2025.6.1)

OECD. 2025b. "BEPS Multilateral Instrument." https://www.oecd.org/en/topics/beps-multilateral-instrument.html. (접속일 : 2025.6.1)

OECD. 2025c. *Global Outlook on Financ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5 : Towards a More Resilient and Inclusive Architecture*. OECD. Paris.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25/02/global-outlook-on-financing-for-sustainable-development-2025_6748f647/753d5368-en.pdf. (접속일 : 2025.4.20)

Ratha, Dilip. n.d. "What are remittances?" https://www.imf.org/external/pubs/ft/fandd/basics/pdf/ratha-remittances.pdf. (접속일 : 2025.5.1)

SDSN. 2025 "Financing for Development: Statement of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https://files.unsdsn.org/SDSN%20Statement%20on%20Financing%20for%20Development%20May%2012%202025.pdf. (접속일 : 2025.5.20)

Spiegel, S. and O. Schwank. 2022. “Bridging the ‘great finance divide’ in developing countries.” https://www.brookings.edu/articles/bridging-the-great-finance-divide-in-developing-countries/. (접속일 : 2025.4.28)

Tipping, Alice. 2025. “FfD4 Countdown: Strengthening trade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ISD. https://www.iisd.org/articles/insight/ffd4-countdown-strengthening-trade-policy-sustainable-development. (접속일 : 2025.5.4)

UNCTAD. 2024a. “Attain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rough trade.” https://sdgpulse.unctad.org/developing-economies-and-trade/. (접속일 : 2025.5.15)

UNCTAD. 2024b.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has reduced tariffs but not tariff escalation.” https://sdgpulse.unctad.org/tariffs/. (접속일 : 2025.5.15)

UNCTAD. 2025. “Debt Crisis : Developing countries external debt hits record $11.4 trillion.” https://unctad.org/news/debt-crisis-developing-countries-external-debt-hits-record-114-trillion. (접속일 : 2025.5.15)

United Nations. 2024a. *Financ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4 : Financing for Development at a Crossroads*. UN. New York. https://desapublications.un.org/file/20487/download. (접속일 : 2025.4.1)

United Nations. 2024b.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24.” https://unstats.un.org/sdgs/report/2024/The-Sustainable-Development-Goals-Report-2024.pdf. (접속일 : 2025.4.1)

United Nations. 2025. “Outcome document of the Four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https://financing.desa.un.org/sites/default/files/ffd4-documents/2025/Compromiso%20de%20Sevilla%20for%20action%2016%20June.pdf. (접속일 : 2025.6.18)

US Mission to the UN. 2024a. “Remarks at the U.S. Intervention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t the Second Preparatory Committee Meeting for the 4th UN Financing for Development Conference.” https://usun.usmission.gov/remarks-at-the-u-s-intervention-on-international-development-cooperation-at-the-second-preparatory-committee-meeting-for-the-

4th-un-financing-for-dev/. (접속일 : 2025.5.2)

US Mission to the UN. 2024b. “Remarks at the USA Intervention on Debt and Debt Sustainability at the UN Meeting entitled Second Preparatory Committee Meeting for the 4th UN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https://usun.usmission.gov/remarks-at-the-usa-intervention-on-debt-and-debt-sustainability-at-the-un-meeting-entitled-second-preparatory-committee-meeting-for-the-4th-un-confer/. (접속일 : 2025.5.2)

US Mission to the UN. 2024c. “Remarks of the USA Intervention on Systemic Issues at the UN Meeting entitled "Second Preparatory Committee Meeting for the 4th UN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https://usun.usmission.gov/remarks-of-the-usa-intervention-on-systemic-issues-at-the-un-meeting-entitled-second-preparatory-committee-meeting-for-the-4th-un-conference-on-finan/. (접속일 : 2025.5.2)

US Mission to the UN. 2024d. “U.S. Intervention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ivate Business and Finance at the Second Preparatory Committee Meeting for the Fourth UN Financing for Development Conference.” https://usun.usmission.gov/u-s-intervention-on-domestic-and-international-private-business-and-finance-at-the-second-preparatory-committee-meeting-for-the-fourth-un-financing/. (접속일 : 2025.5.2)

US Mission to the UN. 2025. “Statement at the intercessional outcome document negotiations for the Four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https://usun.usmission.gov/statement-at-the-intercessional-outcome-document-negotiations-for-the-fourth-international-conference-on-financing-for-development/. (접속일 : 2025.5.2)

Usman, Zainab. 2025. “The End of the Global Aid Industry.” Foreign Affairs. https://www.foreignaffairs.com/united-states/end-global-aid-industry. (접속일 : 2025.6.1)

World Bank. 2007. “General principles for international remittance services.” http://documents1.worldbank.org/curated/en/894291468313541470/pdf/388210ENGLISH01remittances01PUBLIC1.pdf. (접속일 : 2025.6.10)

World Bank. 2023. “Debt Management Facility(DMF)” https://www.worldbank.org/en/topic/debt/brief/debt-management-facility. (접속일 : 2025. 4.18)

연구자료
연구교육 2025-08-102



KOICA
한국국제협력단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번지
Tel 031-740-0114 Fax 031-740-0655 https://www.koica.go.kr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